



필요가 발명을 만든다고 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작지만 큰 불편 중 하나가 바로 앞바퀴의 정렬이다.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방향을 운전석에서도 쉽게 확인하는 필요를 발명으로 이끌어낸 끈기의 벤처가 있다. 8년간의 투자와 기술개발로 '휠 내비게이터 Wheel Navigator'를 만들어낸 콥스테크놀로지(대표 이재욱, www.kobstech.com)가 그 주인공이다.



안전 그 이상의 기술을 추구하는 콥스테크놀로지

자동차 안전의 새로운 도우미 '휠-내비'

'휠-내비게이터'는 핸들 위에 간단히 부착, 직관적으로 타이어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무동력 방식의 타이어 방향 표시기이다. 나침반과 비슷하게 생긴 '휠-내비'는 바탕 좌우로는 바퀴의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눈금이 있으며 중앙에는 기준선과 바늘이 있다. 바늘과 기준선을 일치시켜 내비게이터를 핸들 위에 고정한 뒤 차량을 주차할 경우 바늘과 기준선이 일치하면 바퀴가 중립, 바늘이 왼쪽으로 향하면 좌측, 오른쪽으로 향하면 타이어가 우측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바탕 좌우로 눈금이 있어 핸들의 회전수나 후진 시 방향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휠-내비게이터를 활용하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방향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핸들 조작으로 인한 타이어의 마모, 잘못된 타이어 방향 상태에서 장기주차로 인한 조향장치 이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차차가 두려운 초보운전자는 물론, 운전 숙련자도 정확한 바퀴정렬 습관을 기를 수 있어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휠-내비의 특징점을 설명하는 이재욱 대표의 목소리에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있었다. 실제 운전석에서 타이어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 표시기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일본, 미국 등에서 100여 가지 제품이 발명, 특허출원 됐으나 대부분 부품이 지나치게 많거나 조잡하고 일부는 동력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어 모두 상용화에는 실패했던 아이템.

콥스테크놀로지는 2000년부터 8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끈기와 열정 하나로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모두 극복한 휠-내비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무게추 원리에 착안, 플라스틱 구동기어 3개만으로 핸들의 회전수, 타이어의 방향, 각도까지 알려주는 간편하고 똑똑한 휠-내비는 이미 국내외 실용신안은 물론 2006년 발명특허대전에서도 특허청장상인 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평가받기도 했다. 기능의 복잡성을 최소화 해 심플한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개당 2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도 매력적이다.

안전분야 최고·최대의 기업을 꿈꾼다

"자동차 부품 분야의 경우, 유통회사는 많지

만 기술을 가진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콥스는 자체 원천기술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키우는 회사입니다."

이재욱 대표에게는 강한 소명이 있다. 위의 말처럼 바로 콥스를 '안전'이라는 기술영역에서 최고,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휠-내비게이터에 이어 제동장치의 일종인 '2단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 역시 콥스만의 원천 기술이다. 최초 아이디어를 개념화-기술화-제품화 하는 몇 년의 시간동안, 어떤 어려움보다도 콥스의 기술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이 무엇보다 컸다는 이 대표. 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낸 콥스의 기술은 이제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호응과 휠 내비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칭찬으로 돌아오고 있다. 앞으로는 휠 내비의 디지털 타입 출시와 함께 마케팅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기술만은 큰 회사 콥스테크놀로지.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끝은 창대하리라고 했다. 기술진의 꾸준한 노력과 이 대표의 자신감을 토양으로 삼아 자랄 콥스테크놀로지의 기술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이름을 떨칠 날이 멀지 않을 듯하다.